

# 7장

## 일반적인 질환의 치료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진단을 정확히 해야 한다. 치아의 고름 때문에 얼굴에 짓무른 상처가 나면 깨끗하게 씻어내고 최선의 치료를 위해 짓무름의 원인을 알아 내야 한다.

진단을 내리면 누가 치료할 지 결정한다.

**개인의 한계를 알고 처치 할 수 있는 치료만 한다.**

다음에 건강검기미가 발견할 수 있는 문제를 기술하고 각각의 문제에 대한 처치를 기술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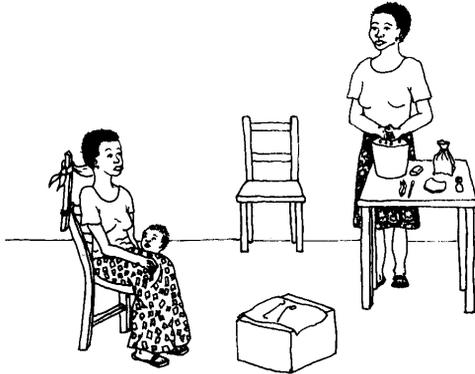
**주의: 입 속을 진찰하기 전에 먼저 손을 깨끗이 씻는다.**

<b>1부: 자주 발견되는 문제들</b>	
<p><b>총 치</b></p> <p>충전물 탈락 ..... 86</p> <p>깨진 충전물 ..... 86</p> <p>고름 주머니 ..... 87</p> <p>감염된 공동 ..... 89</p> <p><b>치아의 외상</b></p> <p>부러진 치아 ..... 90</p> <p>빠진 치아 ..... 91</p> <p>흔들리는 치아 ..... 93</p> <p><b>새 치아가 자라남</b></p> <p>아기의 이가 자라남 ..... 94</p>	<p><b>짓무른 잇몸</b></p> <p>잇몸 질환의 시작 ..... 95</p> <p>잇몸 아래 무엇인가</p> <p>자라남(치육종) ..... 95,127</p> <p>빈센트 감염 ..... 96</p> <p>열성 수포(헤르페스 바이러스) ..... 98</p> <p><b>아구창</b> ..... 99</p> <p><b>입안의 다른 짓무름</b></p> <p>구강 궤양 ..... 100</p> <p>틀니 원인 ..... 100</p> <p>입의 가장자리 ..... 101</p>
<b>2부: 특별한 문제들</b>	
<p><b>골절</b> ..... 102</p> <p><b>빠진 턱</b> ..... 107</p> <p><b>턱관절의 통증</b> ..... 108</p> <p><b>부은 잇몸과 간질</b> ..... 109</p> <p><b>입안의 출혈</b> ..... 110</p> <p><b>치아를 뽑은 뒤에</b></p> <p>얼굴이 부음 ..... 110</p> <p>뽑은 자리가 아픔 ..... 111</p> <p>뽑은 자리의 출혈 ..... 112</p>	<p><b>파상풍</b> ..... 112</p> <p><b>침샘의 감</b> ..... 113</p> <p><b>얼굴의 짓무름</b></p> <p>고름주머니가 원인 ..... 114</p> <p>노마(빈센트 감염의 합병증) ..... 115</p> <p><b>종양</b> ..... 119</p> <p><b>암</b> ..... 119</p>

## 치료의 첫 번째 원칙: 손을 깨끗이 씻는다.

어떤 질환을 다루든지 작업 장소와 기구, 그리고 손과 몸을 깨끗이 한다. 예를 들어 검사나 치료 전에 **항상 손을 씻어서 감염을 예방한다.**

환자가 보는 앞에서 손을 씻는다. 이것은 당신이 세심하고 주의 깊은 건강섬기미임을 나타낸다. 또한 청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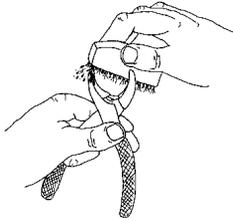


입은 세균이 많은 곳이다. 이 세균은 일반적으로는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신체가 이에 적응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 어떤 세균은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음식을 먹을 때 씹은 음식을 몸에서 흡수하도록 분해하는 세균도 있다.

이러한 일상적인 세균의 수가 갑자기 증가하거나, 해로운 세균이 외부에서 들어올 때 문제가 생긴다. 열이 나고 붓기도 하는데 이것이 감염이다.

입안을 항상 청결하게 하면 세균의 수는 정상으로 유지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치아와 잇몸을 깨끗하게 하도록 가르쳐주되 청결은 각자의 책임이란 것을 알려야 한다.

또한 건강 섬기미들에게는 한 가지 중대한 책임이 있다. **병든 사람으로부터 건강한 사람에게 병균을 옮기지 말아야 한다.** 우선 치과 기구를 소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묵은 음식 찌꺼기나 시멘트, 또는 기구의 혈액에 세균이 숨어 있다. 심지어는 끓여도 죽지 않는다.

그래서 기구의 날을 비누질하고 세게 문질러서 주의 깊게 닦아야 한다. 헹구고 나서 깨끗하고 빛나는지 확인한다.

깨끗해 보이는 것이 반드시 깨끗한 것은 아니다. 정말 깨끗하다는 것은 세균이 없다는 것이다. 살균 소독하지 않는다면 기구에는 세균이 남아 있을 것이다. 이 세균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

**살균소독은 세균을 죽이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열 소독이다. 높은 온도의 열은 거의 모든 해로운 균(특히 간염, 파상풍, 구강감염을 야기하는 균)을 죽인다. 습열(증기)은 오븐 같은 건열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소독할 때는 간단한 규칙이 있다.

**피가 묻은 기구는 모두 끓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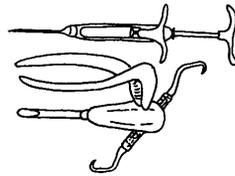
주사기, 바늘, 스켈링 기구(8장), 발치 기구(11장) 등은 항상 증기로 살균 소독한다.

끓는 물에 기구를 소독할 때는 30분간 끓인다.

증기소독할 때 뚜껑이 있으면 내면이 더 뜨거워져서 20분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물은 금속기구를 부식시킨다. 부식을 막기 위해서는

- 끓는 물 1ℓ 에 20ml(5스푼)의 기름을 넣는다.
- 그리고 나서 뜨거운 기구를 건조시키고 깨끗한(살균된) 천에 보관한다.

**젖은 상태로 기구를 방치하지 않는다.**



안전하게 한다!  
의심날 때는 살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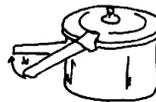
압력 증기 소독법은 가장 빠르고 확실한 소독이다. 이 소독은 세균을 15분 이내로 죽인다. 뚜껑이 꼭 닫히는 튼튼한 그릇이면 된다. **하지만 압력이 너무 센 경우는 뚜껑에 작은 구멍을 내어 증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한다.**

압력솥이 적당하다. 압력솥은 증기를 빼내는 안전 구멍도 있다.

1. 2컵의 물과 2스푼의 기름을 압력솥에 넣는다.



2. 뚜껑을 잘 닫는다. '싯' 하는 소리가 날 때까지 센불에 가열한다.



3. 불을 줄여서 15분간 더 끓인다.

물이 줄어들어 기구나 솥이 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찬물을 틀어서 용기를 식힌다. 뚜껑을 열고 기구를 꺼내 깨끗한 마른 수건으로 말린다.



압력솥에 남아 있는 물로 계속 소독해도 된다.

피가 묻지 않은 기구는 열 소독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검진하거나 체온을 잰 후에는 기구를 씻고 알콜이나 표백제에 담가두면 된다.

### 알콜 용액

1. 매 주 한 번 알콜 용액을 만든다.: 알콜(95%)을 7, 깨끗한 물을 3의 비율로 섞는다. 용기 마개를 꼭 닫아서 증발하지 않도록 한다.
2. 뚜껑이 있는 넓은 그릇에 이 알콜 용액을 반쯤 채운다.
3. 씻은 기구를 이 용액에 완전히 잠기도록 하여 30 분간 담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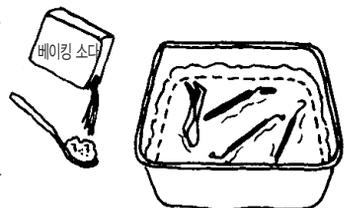


### 표백 용액(차아 염소산 나트륨)

저렴한 가격의 표백제를 구한다. 예를 들어 *Javex*, *Clorox*, *Purex*, *Cidex* 등이 있다. 1/2컵의 표백제에 3 + 1/2 컵의 깨끗한 물을 섞어 1리터의 용액을 만든다.



표백제는 금속을 부식시킨다. 부식을 줄이려면 한 숟가락의 베이킹 소다(중탄산 나트륨)를 용액에 넣는다. 그리고 기구를 용액에 30분간 담근다.



표백제의 층을 제거하기 위해 기구를 알콜로 잘 닦는다. 마른 천에서 건조시키거나 다른 뚜껑 있는 넓은 그릇에 보관한다.

용액은 매주 교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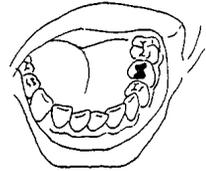
## 1부: 자주 발견되는 문제들

### 충치, 충전물의 탈락, 깨진 충전물

충치는 어느 치아나 생길 수 있다. 또한 예전의 충전물 주변에도 생길 수 있다. 치아가 더러우면 더 잘 생긴다. 신경이 살아있는 치아에서는 충치가 깊을수록 치아가 더 아프다.

#### 증 상

- 물을 마시거나 단 음식을 먹을 때 통증이 있다.
- 치아와 치아 사이에 구멍(또는 검은 점)이 있다.
- 구멍에 음식이 끼면 아프다.
- 치아를 두드릴 때는 아프지 않다.



#### 처 치 (고름주머니가 없을 경우):

헐거워진 충전물의 조각을 탐침으로 제거한다. 그리고 나서 10장에 나와 있는 단계에 따라 임시 충전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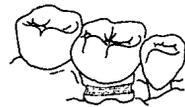
#### 즉시 할 일

1. 구멍을 시멘트로 메운다. 시멘트가 없다면 솜으로 구멍을 막아 음식이 끼지 않도록 한다.
2. 다른 치아의 충치나 깨진 충전물을 살펴본다. 악화되거나 통증이 생기기 전에 시멘트로 메운다.

#### 나중에 할 일 (수개월 내에)

3. 치과 섬기미가 이 임시 충전물을 영구적인 것으로 바꾸도록 조치를 취한다. 치과용 드릴을 사용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145쪽).

치아의 잇몸 부위에 생긴 고랑은 메우기가 훨씬 어렵다. 임시 충전물이 잘 붙어있게 하려면 드릴로 구멍을 만들어야 한다. 임시로 고랑에 불소 용액을 발라줄 수 있다(167). 치아의 내부가 단단해져서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될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반복한다. 또는 정향나무 기름(유지놀)을 발라 통증을 경감시킨다. 증세가 악화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거친 칫솔모를 사용하지 않는다. · 잇몸을 따라 앞뒤로 닦지 않는다. · 딱딱한 것을 씹거나 이 사이에 넣지 않는다.



## 고름주머니

구멍을 메우지 않은 충치는 점점 더 커지고 깊어져서 신경에 닿게 된다. 치아의 뿌리 내부에서 세균이 나와 감염이 시작되는 것을 농양이라고 한다. 고름은 뿌리 끝 뼈 속에서 생긴다. 고름이 증가하면 압력이 높아진다. 이것은 농양이 심한 통증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 증 상

- 항상 아프다. 심지어 잠자려 할 때도 아프다.
- 치아가 길어진 것 같고 약간 흔들리는 것처럼 느낀다.
- 치아를 두드릴 때 아프다.
- 치아 끝 부분의 잇몸이 짓물러 있다(잇몸종기).
- 치아주위의 잇몸이 붓거나 같은 쪽의 얼굴이 붓기도 한다.



### 처 치

**붓기가 없을 때** 치아를 즉시 뽑는다(치아 신경 치료를 할 수 없을 때). 이것은 고름이 빠져나오게 하여 통증을 경감시킨다(11장).

**붓기가 있을 때** 붓기를 먼저 처치한다. 붓기가 가라앉은 다음 치아를 뽑는다. 이것은 붓기가 있을 때 마취가 잘 되지 않기 때문이다(9장). **마취가 되면 치아를 뽑아도 안전하다.**

붓기를 다루기 위해 항생제를 사용한다. **먹는 페니실린계 약이 가장 좋다.** 주사는 위급한 때만 놓는다. 예를 들어 열이 난다든지, 부어서 목구멍을 압박한다든지 하는 경우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감염은 먹는 페니실린계 약물로도 효과가 있다. 감염시 투여하는 약물의 용량에 대해서는 다음 쪽의 내용을 참고한다. 꼭 주사를 놓아야 하면 166쪽 '수용성의 프로케인 페니실린' 부분을 참고한다.

어른과 25kg 이상의 아동은 같은 용량의 페니실린제를 복용한다. 25kg 이하의 아동은 어른의 1/2을 복용한다. 대부분의 감염은 먹는 페니실린을 13회 정도 복용한다. 첫 번째는 많은 양을 투여하고 나머지 열 두 번은 3일 동안 6시간 간격으로 적은 양을 투여한다. **통증이나 붓기가 가라앉아도 남은 약을 다 복용한다.** 정확한 용량은 다음 쪽을 참고한다.

최선의 선택	차선택 (페니실린에 알레르기 반응)
페니실린G 또는V: 1정=250mg 3일 동안 충분히 준다. 첫 번째 투여(한 번) 성인과 25kg 이상 아동 8정(2000mg) 25kg 이하 아동 4정(1000mg) 그 이후 3일간 6시간 간격으로 투여(12번) 성인과 25kg 이상 아동 2정(500mg) 25kg 이하 아동 1정(250mg) 주의: 좋은 효과를 얻으려면 페니실린을 식전에 복용한다.	에리스로마이신: 1정(또는 캡슐)=250mg 3일 동안 충분히 준다. 첫 번째 투여(한 번) 성인과 25kg 이상 아동 4정(1000mg) 25kg 이하 아동 2정(500mg) 그 이후 3일 동안 6시간 간격으로 투여(12번) 성인과 25kg 이상 아동 2정(500mg) 25kg 이하 아동 1정(250mg) 주의: 위장 자극을 줄이기 위해 식사와 같이 복용한다.

**심한 감염**일 경우 항생제를 투여한다. 첫 번째 용량 투여 후 1/2의 용량을 6시간마다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복용한다. 그리고 나서 적은 용량을 6시간마다 5~7일동안 더 투여한다.\* 일반적으로 항생제 치료 끝내기 하 루나 이틀 전 치아를 뽑을 수 있다. 하지만 **치아를 뽑은 후에도 처방 받은 모든 항생제를 복용해야 한다.**

부은 곳이 붓긋해지면 소독된 칼로 짜서 농이 배출되도록 한다. 그리고 상처 부위를 소독된 드레싱으로 덮어준다. 그렇게 할 수 없을 경우 온찜질을 해서 붓기를 가라앉히도록 한다.

붓기가 사라질 때까지 여러번 찜질한다.

- 뜨거운 물에 수건을 적셨다가 꼭 짜서 얼굴에 댄다.
- 더운물을 입안(부은 부위)에 머금고 있다(소금물이나 생수).

마지막으로, 환자에게 통증치료제 이틀분을 준다. 통증에 가장 좋은 약은 **아스피린**이다. 아스피린 1정은 300mg이다. 그리고 **아세트아미노펜**(파라세타몰, 타이레놀)은 1정에 500mg이다. 아스피린이 일반적으로 더 싸다. 하지만 아세트아미노펜이 위장장애가 적고 아동에 더 안전하다(위장장애를 막기 위해 아스피린을 음식, 우유, 물과 함께 복용한다).

아스피린이나 아세트아미노펜을 하루 네 번 복용한다. 매 6시간마다 성인은 2정씩, 8-12세 아동은 1정씩, 3-7세는 1/2정씩 복용한다. 1-2세는 아세트아미노펜만 복용하되, 하루 네 번 1/4정씩 복용한다(165쪽).

\* 감염이 낫지 않으면 페니실린만 먹어서는 안 된다. 농을 채취하여 검사해 보고 다른 항생제를 투여한다.

## 감염된 상악동

상악동은 뼈 내부의 빈 공간이다. 눈 아래, 코 양옆에 있다. 상악동은 치아의 뿌리 끝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공동이 감염되면 치아가 아플 수 있다.

### 증 상

- 윗쪽 치아 몇 개에 통증이 있다. 치아는 건강해 보이지만 두드리면 통증이 있다.
- 감기, 코막힘의 증상이 있다. 입으로만 숨을 쉰다.
- 눈 아랫 부분을 누르면 통증이 있다.



### 처 치

**치아를 뽑지 않는다.** 공동의 감염을 치료하면 치아는 좋아진다.

1. 3일 동안 페니실린을 준다(88쪽 참고).
2.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설명한다.
  - 물을 많이 마신다.
  - 물을 끓여 그 증기를 쥘다. 코가 깨끗해진다.
  - 가능한 자주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을 얼굴에 댄다.
  - 코를 풀지 않는다. 코를 자주 풀면 귀를 다칠 수 있다. 코는 씻어낸다.
3. 3일 후에 환자를 다시 관찰한다. 그리고
  - 치아를 자세히 관찰한다. 치아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치아를 두드린다.
  - 좋아지지 않으면 숙련된 의료인에게 도움을 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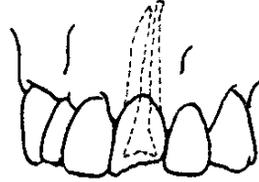
## 치아의 외상

### 1. 부러진 치아

부러진 치아도 살릴 수 있다. 치아의 어느 부위가 부러졌는지, 신경이 노출되었는지 신중히 진단한다.

#### 증 상

- 숨쉬거나 물 마실 때 통증이 있다.
- 치아 주위 잇몸에 출혈이 있다.
- 만질 때 치아가 움직인다.



#### 처 치

##### 치아를 뽑을 경우:

- 신경이 노출되었다. 신경치료를 할 수 없다면 치아를 뽑아야 한다. 타액 속의 균이 치아 내부로 들어가면 감염이 시작된다.
- 뿌리가 부러졌다. 뿌리 주변의 뼈를 살피면서 치아를 살며시 눌러본다. 치아가 움직이지만 뼈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뿌리는 부러진 것이다. 치아와 뼈가 같이 움직인다면 뿌리는 아마도 부러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뿌리 주변의 뼈가 부러진 것일 수 있다(103쪽).

##### 신경이 노출되지 않고 뿌리가 부러지지 않았다면 치아는 살릴 수 있다.

줄을 사용하여 부러진 부위 주변을 갈아낸다. 이는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 혀를 자극하지 않게 한다. 나중에 재료와 도구를 갖춘 숙련된 치과 의뢰인이 부러진 부위를 메꾸워 줄 것이다. 그때 까지 치아를 잘 보호하도록 환자에게 설명한다.

- 해당 치아를 사용하지 않는다. 씹을 때 다른 치아를 사용한다.
-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음료를 마시지 않는다. 자극적인 음식을 피한다.
- 치아의 색이 검게 변하는지 살펴본다. 또한 뿌리 주변의 잇몸에 짓무름(잇몸종기)이 생기는지 살펴본다.

검은 치아나 잇몸종기는 치아가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특별히 신경치료를 행할 수 없다면 뽑는다.

## 2. 빠진 치아

치아가 빠졌을 때 다음의 경우를 생각한다: (1) 유치인가? (2) 이가 언제 빠졌나?

유치를 제 위치에 다시 넣을 필요는 없다. 피가 멈추도록 솜을 잘 물고 있게 한다. 영구치가 자라날 때까지 기다린다. **보호자에게 유치가 있는 경우의 다른 영구치보다 영구치가 나오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말해 준다.**

유치가 잇몸 아래로 비스듬히 박히더라도 처치할 필요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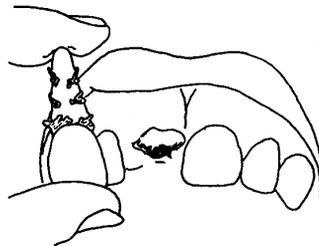
치아는 나중에 제 위치로 잘 자라날 것이다. 혹은 치아가 검게 변하면 죽을 수도 있다. 검게 변한 치아나 치아 종기를 발견한다면(72쪽) 아래에서 자라고 있는 영구치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 뽑는다.



영구치. 영구치는 잘 보존해야 한다. 치아가 빠진 것이 12시간이 채 안 지났으면 치아를 빠진 자리에 도로 넣을 수 있다. 이것은 빠를수록 좋다. 따라서 지체하지 말고 넣는다. **한 시간 안에 넣는다면 뼈나 잇몸에 훨씬 더 잘 붙을 수 있다.** 뼈에 잘 붙게 하기 위해 치아를 잘 고정시켜야 한다.

1. 치아를 깨끗한 물로 조심스럽게 씻는다. 뿌리 부분에 이물질이 묻어있는지 살핀다.

치아를 젖은 거즈에 싸서 보관한다.



치아 주변이나 발치와 내의 조직  
들을 긁어내지 않는다.

2. 치아를 발치와에 부드럽게 밀어 넣는다. 이 때 앞뒤로 약간 돌리는 것처럼 힘을 준다.

빠진 치아의 씹는 면이 옆의 다른 치아와 비슷한 높이가 되게 한다.

손가락으로 5분 정도 누르면서 고정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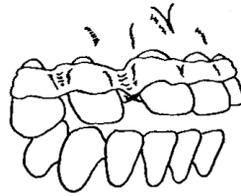
3. 밀랍을 부드럽게한 후 말아서 두개의 롤 모양을 만든다. 그 중 하나를 치아 다섯 개 앞면의 잇몸에(빠진 치아와 양쪽 두개씩의 치아) 붙이고 단단히 눌러준다.

치아의 뒷면에도 같은 방법으로 롤을 붙인다.

앞뒤의 밀랍이 서로 닿게 하면 좋다. 이렇게 하면 치아가 더 단단히 잘 붙는다. 치아 사이의 밀랍을 핀셋 끝을 사용하여 눌러주면 좋다.

**환자에게 몇 번 더 내원하도록 지시한다.** 치아는 수 개월 혹은 수 년 후에 죽을 수 있다(45쪽). 신경치료를 할 수 없을 경우 발치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치아의 X선 사진을 6개월 이후에 찍고 이후로 매 년 찍어 놓는다. 감염으로 뿌리가 녹아 없어지지 않는지 X선 사진으로 확인한다. 이것으로 옆의 치아 뿌리와 비교한다.



밀랍을 적어도 3주 동안 붙인다.

## 흔들리는 치아

치아가 흔들리는 원인을 살펴본다.

치아가 흔들리는 이유	최선의 조치
새로운 영구치가 밑에서 자라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과 본인에게 설명한다.</li> <li>• 아프다면 흔들리는 유치를 뽑는다.</li> </ul>
잇몸 질환이나 오래된 고름주머니가 뿌리 주변의 뼈를 파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많이 아프면 이를 뽑는다.</li> <li>•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설명해 준다.</li> </ul>
뿌리가 부러졌다.	치아의 머리와 뿌리를 모두 뽑는다. 부러진 치근이 잘 빠지지 않으면 그대로 두고 한 주 뒤에 다시 시도한다.
뿌리 주변의 뼈가 부러졌다. (누르면 뼈가 움직인다.)	치아를 뽑지 않는다. 뽑으면 뼈가 치(치아를 아와 같이 떨어나올 것이다. 철사로 치아를 잘 고정해 준다.

다른 치아가 세게 닿으면 치아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낀다.

### 증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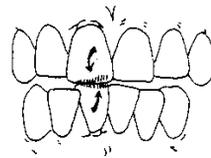
- 위 아래의 치아가 맞닿을 때 치아가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다.
- 그 치아가 아프다.



### 처 치

너무 세게 닿는 치아는 약간 갈아준다. 치과용 드릴이나 작은 줄, 아니면 거친 돌을 사용한다.

- 위쪽 치아의 안쪽을 간다.
- 아래쪽 치아의 바깥쪽도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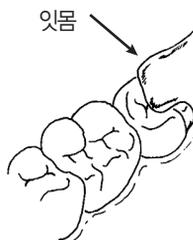


## 치아가 자라남

새 치아가 자랄 때 잇몸을 뚫게 된다. 여기에 세균이 잇몸 아래로 쉽게 들어가면 감염을 유발한다. 반대편의 치아가 씹으면서 잇몸을 자극하면 감염을 더 악화시킨다.

### 증 상

- 턱의 뒷부분 치아에 통증이 있다.
-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
- 입 뒷 부분에서부터 나쁜 맛이 난다.
- 목이 아프다.
- 새 치아가 나는 잇몸 부위가 짓무르고 만질 때 아프다.
- 환자의 나이가 새 치아가 자라는 나이이다(64쪽).



잇몸의 감염과 그곳에 가해지는 자극이 통증의 원인이다. 새 치아를 덮고 있는 잇몸을 주목한다.

### 처 치

**감염과 통증이 있으면 새 치아를 뽑지 않는다.** 감염이 치료될 때까지 기다린다. 치아가 자랄 공간이 있는지 살핀다. X선 사진을 찍어보면 알 수 있다. 새로 나는 어금니는 뽑기가 어렵다. 뽑아야 한다면 숙련된 치과 의료인에게 요청한다.

#### 의료인이 할 수 있는 일

먼저, 감염을 치료한다. 그리고 새 치아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치아가 자라는 동안 어떻게 잇몸을 관리해야 하는지 설명한다.

- 따뜻한 소금물로 헹군다(7쪽). 입이 정상적으로 벌어질 때까지 매일 네 컵의 소금물로 헹군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매일 헹군다. 치아가 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이런 식으로 입을 헹군다.
- 따뜻한 물수건으로 턱을 자주 째질해 준다.
- 통증에는 아스피린을 복용한다(88쪽). 열이 나고 붓거나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면 페니실린 약(87쪽)을 준다.

## 아기의 이가 자라남

아기에게 처음 치아가 나는 것을 치아 맹출이라고 한다. 잇몸을 아프게 하므로 아기가 불쾌감을 느낀다.



치아 맹출은 열이나, 감기, 기침을 야기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새 치아가 나올 때 이런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 처 치

아이에게 다른 질병이 있다면 단순히 치아 맹출 탓으로 돌리지 말고 다른 원인을 살펴본 후 치료한다. 또한 자라나는 치아의 잇몸을 절개하지 않는다. 치아가 저절로 자라도록 그냥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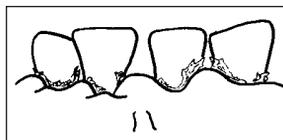
- 통증이나 열이 있으면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아스피린을 준다(88쪽).
- 아기에게 딱딱한 음식을 주고 씹게 하면(비스켓 종류) 치아가 잇몸에서 빠르게 자란다.

## 짓무른 잇몸

치아 주변이 깨끗하지 않으면 잇몸감염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치아 사이에 부종(치육종)이 생길 수 있다. 게다가 영양이 부족하면 잇몸은 저항력이 떨어진다. **임산부는 잘 먹고 특히 이를 깨끗이 해야 한다.**

### 증 상

- 잇몸이 분홍색이 아니라 붉은 색이다.
- 잇몸과 치아 사이가 느슨하다.
- 치아 사이의 잇몸이 뾰족하지 않고 둥글다.
- 잇몸을 누르거나 아래에 낀 음식을 긁어낼 때 피가 난다.
- 입냄새가 나거나 나쁜 맛이 난다.



잇몸 아래에 치석이 느껴진다. 심지어 생선 가시처럼 거칠거칠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 처 치

환자에게 잇몸질환의 원인을 설명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설명한다.

1. 잇몸을 더 깨끗이 하는 칫솔질 방법을 보여준다.
2. 따뜻한 소금물로 입안을 헹구도록 한다(7쪽). 출혈이 멈출 때까지 매일 네 컵씩 행군다. 그리고 계속해서 잇몸이 튼튼해지도록 매일 한 컵씩 행구도록 한다.
3.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먹도록 지시한다. 구아바, 오렌지, 파인애플, 파파야, 토마토, 완두, 녹색 잎 채소들이 잇몸을 튼튼하게 한다.
4. 조심스럽게 치석을 제거한다(8장).

## 심한 잇몸 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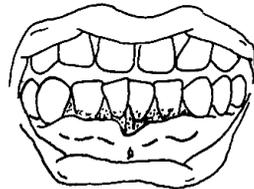
잇몸의 빈센트 감염은 성인, 어린이 모두에게 생긴다. 최악의 경우 아이의 볼을 뚫고 생길 수도 있다(115쪽).

빈센트 감염에 걸린 사람은 이가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않으려 한다. 아이는 영양실조에 걸리기도 한다.

먼저 이런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어머니에게 자녀의 치아를 잘 닦아주고 따뜻한 소금물로 헹구도록 가르친다.

## 증 상

- 치아 사이의 잇몸이 괴사되고 회색빛이 된다.
- 농과 피가 치아 주변에 쌓여있다.
- 잇몸이 화끈거리며 아프다.
- 잇몸에서 피가 난다.
- 나쁜 입냄새가 난다.



## 처 치

환자를 2주 이상 관찰한 다음 치료한다.

1. 이미 병이 있다면 페니실린 약을 3일간 준다(88쪽).

2. 농을 씻어 제거하고 음식찌꺼기, 치석을 제거한다. 그리고 나서:

- 환자에게 따뜻한 물로 입안을 행구도록 지시한다.
- 잇몸을 5% 과산화수소를 묻힌 솜으로 닦아낸 다음 따뜻한 물로 헹군다. 또는 과산화수소와 물을 1대 5의 비율로 섞어 잇몸을 닦아낸다.
- 큰 치석 덩어리는 긁어서 제거한다. 한꺼번에 모두 제거하지 않는다. 도포마취제가 있으면 잇몸에 도포한다(도포 마취가 오래 가게 하려면 잇몸을 솜으로 건조시킨다). 느슨하게 붙어있는 치석도 따뜻한 물로 축인 후 제거한다.

3. 비타민 C를 준다. 하루에 2알씩 1주일 준다(1정=500mg).

4. 잇몸 관리하는 법을 가르친다.:

- 3일 동안 약한 과산화수소수(8쪽)로 입안을 행군다. 3~4분간 입안에 머금고 있다가 뱉는다. 오래 머금을수록 좋다. 매 시간마다 한 번씩 행군다. 3일 후에 하루 네 컵의 소금물로 바꾼다. **과산화수소가 없으면 처음부터 소금물을 사용해도 된다.**



행구지 못하는 아기는 보호자가 약한 과산화수소수로 잇몸을 하루 네 번 닦아준다. 먼저 보호자에게 시범을 보인다. 거즈와 과산화수소를 준다.

- 부드러운 솔로 이를 닦는다. 부모님이 아기의 이를 닦아준다. 잇몸에서 피가 나도 계속 닦는다.
- 부드럽고(으깬 고구마 같은) 자극적이지 않은(후추가 없는) 음식을 먹는다. 잇몸 건강을 위해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먹게 한다.
- 담배는 피우지 않는다. 땅콩처럼 딱딱한 음식을 씹지 않는다.

**일 주일 뒤에** 치아에서 나머지 치석을 긁어낸다. 환자의 칫솔로 이 닦는 방법을 가르친다.

## 열성 수포

열성 수포는 헤르페스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병으로 입안의 잇몸이나 입술 바깥쪽에 생기는 짓무른 상처이다.

**입안에 생긴 상처**는 1세~5세의 아이들에게 자주 발생한다. 입안에 열성 수포를 가지면 매우 아프다. 제대로 음식도 못먹고 물도 마시기 어렵다. 물이 부족해 탈수증상이 오면 매우 위험하다.

### 증 상

- 목이 아프고 열이 난다.
- 아기는 칭얼댄다.
- 2-3일 전부터 젖을 빨지 못한다.
- 침 삼키기가 어려워 침을 흘린다.
- 턱 아래쪽이 붓는다.
- 잇몸에 붉은 수포가 있다. **치아 사이에는 생기지 않는다.**  
수포가 입천장에 생기기도 한다.



### 처 치

약으로는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죽일 수 없다. 짓무른 상처는 10일이 지나면 저절로 낫는다. 환자가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시면 치료에 도움이 된다.

1. 열이 나면 아스피린이나 아세트아미노펜을 준다(88쪽).
2. 상처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 우유나 요구르트 등을 준다.

**입 안을 만지기 전에는 손을 꼭 씻는다**(82쪽). 부드럽고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준다. 음식을 먹을 수 없을 경우 특별히 만든 우유-기름 음료를 준다(105쪽).

3.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한다.

**입술**의 짓무른 상처는 일반적으로 5세 이후에 발생한다. 설사나 폐렴 환자 같이 허약한 사람에게 잘 생긴다.

열은 없고 수포는 곧 터져서 물이 나온다. 시간이 지나면 딱지가 앉는다. 수포는 종종 재발된다. 대개 1주일이면 낫는다. 상처에 젠티아나 바이올렛, 벤조인 톨크제, 바세린 연고를 발라준다. 상처에 얼음주머니를 대주면 상처가 빨리 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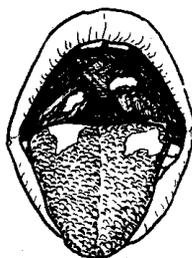


## 아구창

아구창은 감염의 일종이다. 영양부족, 또는 다른 병이 걸리거나 테트라 사이클린, 앰피실린 같은 약을 복용할 때 나타날 수 있다. 아기들은 혀나 입천장에 잘 생긴다. 아기에게 아구창이 발생하면 젖을 빨지 못한다. 노인들은 틀니 아래쪽에 생길 수 있다.

### 증 상

- 혀, 볼 입천장이 하얗게 덮여 있다.  
이 곳을 닦아낼 때: **출혈이 없으면 우유 찌꺼기**가 쌓인 것이고 **출혈이 있으면 아구창**이다.
- 아기는 젖을 빨지 않고 심하게 보챈다.



### 처 치

아구창이 발생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살핀다. 예를 들어 영양실조를 치료하거나, 항생제 치료약을 바꾸거나, 틀니를 뺀다. 그리고 나서:

1. 하얗게 덮인 환부에 니스타틴 크림을 솜에 묻혀서 바른다.

성인: 하루 네 번, 5-12세 아동: 하루 세 번, 5세 이하 아동: 하루 두 번

보호자에게 약바르는 시범을 보인다. 니스타틴 용액이 없으면 젠티아나 바이올렛을 발라준다. 하루에 두 번 발라 주어야 한다.

**다른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면 페니실린이나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아구창은 항생제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악화될 수 있다.

2. 젓먹이 아기에게는 젖을 계속 먹인다. 어른은 부드러운 음식, 씹기 쉬운 음식을 먹는다.

때로 하얀 줄이 뽑이나 입천장에 생기고 선이 짓무르고 상처가 나면 암으로 진행될 수가 있다(119쪽).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연해야 한다**(특히 파이프담배). **빈랑나무 열매류를 씹지 않는다. 틀니가 잘 맞지 않으면 고친다.**

## 입안의 다른 짓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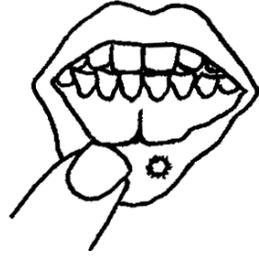
### 구강 궤양

열성 수포처럼 바이러스가 구강 궤양을 일으킨다. 열성 수포와 다르게 구강 궤양은 어른에게 많이 생긴다.

궤양은 한 개, 혹은 여러 개 생길 수 있다. 상처는 음식이 닿으면 굉장히 아프다.

#### 증 상

- 궤양이 혀나 입천장, 또는 잇몸 아래쪽 매끈한 피부에도 생길 수 있다.
  - 궤양은 주위가 밝은 붉은 색으로 싸인 하얗거나 노란 상처이다.
  - 비슷한 구강 궤양을 전에 앓았어도 다시 재발하는 경향이 있다.
- 날카로운 끝을 가진 틀니가 잇몸 주위를 문질러 비슷한 상처를 남길 수 있다.**



#### 처 치

구강궤양은 열흘쯤 지나면 저절로 없어진다. 약물이 치료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하지만 틀니를 매끄럽게 갈아주는 것은 도움이 된다). 처치는 간단하다. 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후추나 자극성 있는 향료가 든 음식은 피한다. 음식을 궤양이 없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씹는다.

잘 맞지 않는 틀니는 다시 만든다.  
틀니를 맞추는 2-3일 동안 틀니를 벗어둔다.  
궤양이 좋아질 때까지 매일 따뜻한 소금물 네컵으로 헹구어 낸다.



궤양이 열흘이 지나도 낫지 않으면 감염된 것일 수 있다. 페니실린 약을 준다(87쪽).

**항생제 치료에도 낫지 않는 궤양은 암일지도 모른다. 즉시 의사를 찾도록 한다.**

## 입의 가장자리가 짓무름

치아는 입술을 지켜준다. 씹을 때에 치아는 아래턱이 더 이상 코 쪽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막는다.

치아가 많이 빠진 사람은 늙어 보인다. 잘 맞지 않는 틀니를 낀 사람도 역시 늙어 보인다. 턱 끝에서부터 코까지의 길이가 정상보다 짧아진다. 그런 사람은 씹을 때에 턱을 더 가깝게 하기 때문에 입의 양쪽 가장자리에 주름이 생긴다.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입가의 주름이 갈라지고 짓무르게 된다.**

치아가 빠진 사람은 틀니가 필요하다. 틀니는 음식을 잘 씹게 하고 더 젊어 보이도록 한다. 치아는 입술을 보호하며 입이 더 잘 벌어지게 한다.

틀니를 만드는 일은 어렵다. 우리는 장차  
틀니에 대한 자세한 책을 쓰게 되기를 바란다.

열이 나고 홍역에 걸린 아이는 종종 입술이 마른다. 마른 입 가장자리는 갈라지고 짓무르게 된다.

아이들의 입 가장자리가 갈라지고 짓물러 상처가 나는 것은 탈수와 영양부족 때문이다.



아이들은 힘과 에너지를 주고, 몸을 보호해주는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콩, 우유, 계란, 생선, 기름, 과일, 녹색 채소(65쪽)를 먹인다.

**처치** (상처가 있을 때)

1. 짓무른 곳을 비누칠 해서 따뜻한 물로 씻어낸다.
2. 유황과 바셀린을 1대 10의 비율로 섞는다.
3. 하루에 3-4회 상처에 바른다.

## 2부: 특별한 문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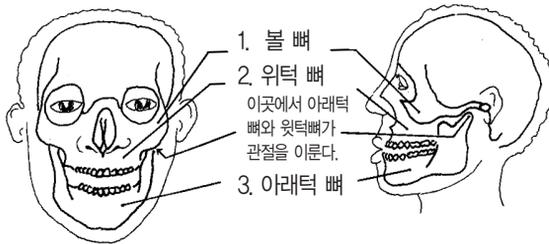
환자의 상태가 너무 위중하다면 가능한 빨리 환자를 숙련된 치과 의료인에게 보내도록 한다.

하지만 때로 응급 처치는 하는 것이 좋다. 적절한 응급처치는 병이 심각해지는 것을 막고 또한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받고 회복이 더 빠르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도움을 주고 싶어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를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심한 질병에 관해서도 진지한 논의를 한다면 필요한 만큼의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 골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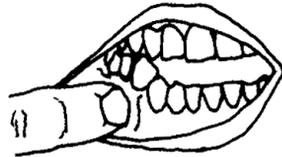
얼굴과 아래턱에는 세 개의 주된 뼈가 있다.



뼈는 완전히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부분적으로 금이 갈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치아는 제 위치를 벗어나서 밀린다. 이것을 골절로 본다.

### 골절의 증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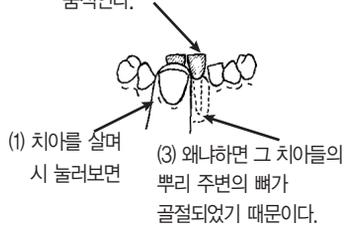
- 부상을 입었다.
- 입을 다물면 몇 개의 치아가 서로 닿지 않는다.
- 입을 적당히 벌리거나 다물기 힘들다.
- 두 개의 치아 사이에 출혈이 있다.
- 얼굴이나 턱이 붓고 멍 자국이 있다.
- 눈에 출혈이 있다.



### 치아 주변의 뼈에 금이 생긴 증상

- 치아를 움직일 때 옆 치아도 같이 움직인다.
- 흔들리는 치아를 움직일 때 뼈도 같이 움직인다.
- 피가 잇몸 아래부터 나온다.

(2) 인접치도 역시 움직인다.



### 치 치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갔을 때, 치치는 부러진 부분을 다시 붙일 수 있도록 함께 잡아 주는 것이다. 일반적인 방법은 치아를 철사로 묶는 것이다. 이 일은 숙련된 치과 의료인이 해야 한다. 병원에 가기 전에 첫째로 응급 처치를 행한다. 뒤에, 환자에게 먹는 방법과 입을 깨끗이 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 응급치치 (103-104쪽)

1. 편히 숨쉴 수 있도록 한다.
2. 출혈을 멈추게 한다.
3. 머리에 붕대를 감는다.
4. 감염을 막기 위해 페니실린 약을 주사한다.
5. 통증에는 아스피린을 준다.



옆으로 누워 턱과 혀가 앞으로 향하게 한다.

#### 1. 편히 숨쉴 수 있도록 한다.

나중에 이 자세로 환자를 병원에 옮긴다. 차를 타면 머리가 앞쪽으로 향하게 앉힌다. 혀와 턱이 앞으로 향하면 더 숨을 잘 쉬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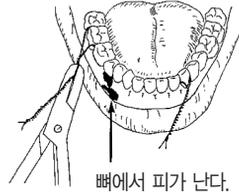
부러진 치아나 흔들리는 치아가 있는지 입안을 자세히 살펴본다. 부러진 치아 조각은 환자의 목구멍을 막을 수 있다. **그러므로 부러진 조각은 즉시 꺼낸다.** 뿌리는 그냥 두어도 좋다. 하지만 그럴 경우 병원의 치과 의사에게 알린다(175쪽). 그들이 철사로 고정할 때 뿌리를 뽑을 것이다.

#### 2. 출혈을 멈추게 한다.

얼굴이나 입 안의 말라 붙은 피를 제거하고 출혈 부위를 찾는다. 얼굴의 깊은 상처는 꿰매준다. 피가 나는 잇몸에 거즈를 대고 부드럽게 누르면 출혈은 멎을 것이다.

**입 안의 부러진 뼈 사이에서 나오는 출혈은 멈추기가 훨씬 어렵다.**  
치아를 제 위치에 고정시켜야 한다. 얇고 강하고 잘 구부러지는 철사가 필요하다. '고정용철사' (0.20게이지)가 가장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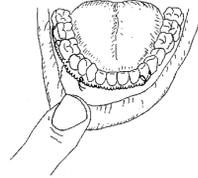
부러진 뼈의 양쪽에 있는 두 치아 주변에 철사를 넣는다. 옆의 치아 중 가장 길거나 많은 뿌리를 가진 치아를 선택한다.



뼈에서 피가 난다.

환자에게 이를 다물도록 지시한다. 부러진 부분을 올려서 아래와 위의 치아가 서로 잘 닿도록 한다. 이것이 턱뼈가 이를 붙잡고 있는 정상적인 위치이다.

이 때 철사를 합치고 꼬아서 조인다.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면 국소마취를 하는 것이 좋다(8장). 철사가 부러진 뼈를 잘 붙잡을 수 있도록 충분히 조인다.



꼬인 철사의 끝 부분을 치아 쪽으로 구부려 준다. 그래야 입술이나 볼을 찌르지 않는다.

### 3. 머리에 붕대를 감는다.

치아가 서로 닿도록 입을 다물게 한 다음 머리와 턱을 붕대로 감아 위치를 고정시킨다.



턱을 보호하도록 붕대로 감고 묶는다. 치아를 약간 벌여서 입이 조금만 열릴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붕대가 숨쉬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페니실린 약을 주사한다**(166쪽).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5일치 약을 준다.

**5. 통증에 대한 약을 준다.** 아스피린(88쪽)이면 충분하다. 통증이 심해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면 코데인 약을 준다. 성인의 용량은 30mg이다.

가능한 빨리 환자를 병원으로 보낸다. 환자는 사고 후 1주일 이내에 치아에 철사 고정 장치를 끼워야 한다. 4주~6주 동안 철사를 끼고 있어야 한다. 일주일에 한 번 환자는 병원에 와서 철사를 단단히 조인다. 그 동안 환자는 입을 벌려서 음식을 씹거나 이를 닦을 수 없다.

**제대로 먹지 못하는 환자 돌보기**

- 힘과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음식을 유동식으로 준다.
- 치아를 깨끗이 하고 잇몸을 튼튼히 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1. 음식은 유동식으로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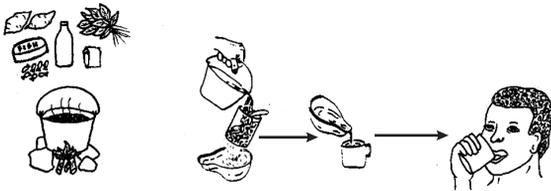
(1) 힘을 키워주기 위해 우유기름 음료, 수프를 준다.

**우유-기름 음료**

재료 • 물 9컵 • 분유 3컵 • 땅콩 기름 또는 코코넛 우유 150ml  
 • 꿀 1/2컵 또는 설탕 1컵  
 먹을만큼 환자 곁에 놓고 나머지는 냉장 보관한다.

**야채 수프 재료**

- 물고기 통조림 반 캔, 또는 건어류 한 움큼
- 4작은 스푼의 땅콩 기름 혹은 팜유
- 고구마 6개 • 녹색 채소 • 1작은 스푼의 소금



수프를 가는 체에 넣어 숟가락 뒤로 짓이긴다. 환자는 이 수프를 이 사이로 빨아서 마실 수 있다.

**2. 치아를 깨끗이 하고 잇몸을 튼튼하게 한다.**

환자는 이와 잇몸을 깨끗이 하는 방법을 배워서 익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잇몸은 쉽게 감염되고 통증을 느낄 것이다. 그러므로:

- 수프를 마신 뒤에 치아와 철사를 부드러운 솔로 잘 문지른다.
- 매일 두 컵의 따뜻한 소금물(7쪽)로 헹군다.

치아뿌리 주변의 뼈에 금이 갔다면 치아는 흔들릴 것이다. **뼈가 잘 붙을 때까지 치아를 그대로 둔다.** 치아를 뽑으면 뼈가 드러나서 턱에 큰 구멍이 생길 것이다. 대신에 뼈의 양쪽을 잘 붙잡고 있도록 치아를 보강해 준다.

1.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치아와 뼈를 제 위치에 맞춰 놓는다.



2. 피하주사 바늘을 잘라 부목으로 사용한다. 이것은 흔들리는 치아의 양쪽에 있는 튼튼한 두 치아를 감쌀 수 있도록 충분히 길어야 한다. 치아의 배열과 맞게 바늘을 구부린다. 끝 부분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끝이나 돌로 문지른다.

바늘을 치아 주변으로 구부려 찌르지 않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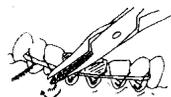


3. 각 치아를 바늘에 묶는다. 0.20게이지의 고정 철사의 짧은 조각을 이용한다(104쪽). 철사의 한쪽 끝을 바늘의 **아래 쪽**에 넣고 치아의 뒤쪽으로 넘겨 바늘의 **위쪽**에서 치아 앞쪽 방향으로 넘긴다. 치아의 뒤쪽에서 아래로 철사를 넘겨 작은 기구의 끝 부분으로 당기고 양쪽 끝을 함께 모아 끈다. 치아마다 철사를 조인다.



지혈검자나 봉합검자를 사용한다.

4. 고정철사의 끝 부분을 절단한다. 이 때 치아쪽으로 휘게 해서 입술을 찌르지 않도록 한다.



5. 다음날도 철사를 조여주고 그 후 매주 한 번씩 조여준다. 반바퀴 정도만 조이면 튼튼하다.

더 많이 하면 철사가 끊어진다. 항상 시계 방향으로 돌린다. 습관을 들이면 조이는 방향과 푸는 방향을 기억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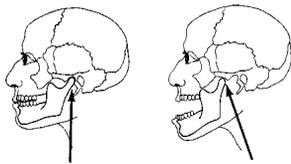
6. 환자에게 4주 정도 지나면 뼈가 붙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기간 동안 철사는 치아에 붙어 있어야 한다. 다음 사항을 환자에게 지시한다.

- 씹을 때 다른 치아를 사용한다. • 치아를 깨끗이 하고 철사를 부드러운 솔로 닦는다. • 매일 두컵의 따뜻한 소금물로 헹군다(8쪽).
- 1주일에 한 번씩 철사를 조인다.

7. 4주 이후에 철사를 자르고 제거한다. **환자에게 치아를 관찰하도록 한다.**

## 빠진 턱

입을 크게 벌렸다가 다시 다물 수 없다면 그것을 빠진 턱이라고 한다. 턱이 빠진 상태로 고정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어금니가 빠진 사람한테서 종종 발생한다. 크게 하품을 하거나 소리를 지를 때 머리 뼈와 닿는 턱의 부분은 관절 내에서 앞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나서는 정상적인 제 위치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다.



### 증 상

- 이가 서로 닿게 다물 수 없다.
- 입술을 쉽게 다물 수 없다.
- 아래 턱 뒤쪽이 길고 뾰족해 보인다.
- 귀 앞쪽의 관절을 누를 때 아프다.
- 분명하게 말할 수 없다.

### 치 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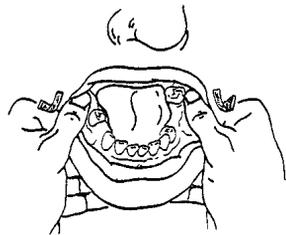
치치는 아래턱을 원래 있던 뒤쪽으로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근육이 안정될 때까지 그 위치에서 고정시킨다.

1. 머리를 지탱해 준다. 예를 들어 벽에 머리를 기대게 하고 바닥에 앉힌다.
2. 환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앉는다. 입 바깥쪽 턱 아래를 손가락으로 잡는다. 엄지 손가락을 양쪽 제일 끝에 있는 치아 옆에 댄다. 엄지 손가락을 어금니 위에 놓지 않는다. 자칫 환자가 깨물 수 있다!

엄지 손가락으로 치아를 누른다. 턱을 아래쪽, 뒤쪽으로 움직인다. 뒤로 밀기 전에 먼저 아래로 밀어야 한다. 턱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근육이 너무 긴장된 것이다. 이때 치과 의사가 환자를 진신마취하면 근육이 이완될 것이다.

3. 턱을 머리 턱 봉대로 3-4일간 고정한다 (104쪽).
4. 통증이 있으면 아스피린을 준다(88쪽).
5. 환자에게 턱을 보호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2주일 정도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다.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턱을 찜질한다. 입을 크게 벌리지 않는다. 가능하다면 빠진 아래쪽 치아들을 틀니로 교체한다 (101쪽).



## 턱관절의 통증

**관절**은 뼈와 뼈가 만나는 곳이다. 턱 뼈는 두 개의 관절을 가지며 귀 앞에서 머리뼈와 만난다.

입은 다음 상태일 때 열리고 닫힌다:

- 근육이 턱뼈를 당긴다.
- 턱관절 내에서 턱뼈가 머리뼈와 미끄러지듯 움직인다.

다음과 같은 이유일 때 관절에 통증이 있다.

- 환자가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 근육이 긴장되어 있다.
- 관절 내의 턱뼈가 골절되었다.
- 치아가 잘 맞지 않는다.



## 처치

처치하기 전에 통증의 원인을 찾는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원인을 자세히 알아본다.

### 1. 긴장

환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해결할 방법을 찾는다. 이렇게 하면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킬 수 있을 것이다.

- 통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부드러운 음식만 먹는다.
-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기 위해 뜨거운 물을 수건에 적셔서 턱을 찜질한다. 가능한 자주한다. 하지만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한다.
- 진통제로 아스피린(88쪽)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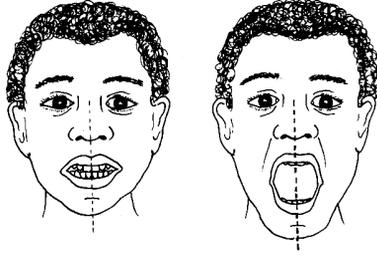
### 2. 골절

X선 사진에 골절로 나타났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치과 의사는 뼈가 잘 붙도록 치아를 철사로 묶을 수 있다.

### 3. 적절히 맞지 않는 치아

입술을 맞닿게 한 상태에서 윗 치아의 가운데와 아랫 치아의 가운데를 지나는 선을 그려본다. 입을 벌리면 이 선은 더 길어진다. 만약 선이 휘다면 후에 관절의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치아는 정상이다.  
입을 벌릴 때 가운데  
위 아래 두 치아 사이의  
선이 수직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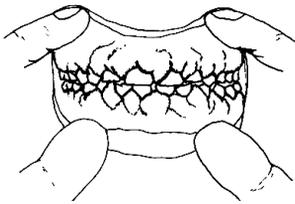
적절히 맞닿지 않은 치아일 때:

- 입을 크게 벌리지 않도록 주의시  
킨다. 예를 들어 음식을 잘게 썰  
어 섭취하도록 지시한다.
- 환자에게 치료 과정을 설명한다.  
치과 의사가 치아를 특별한 방법  
으로 갈면 통증이 멎는다.



이 치아는 맞닿지 않았다. 중심선이  
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턱이  
옆으로 비뚤어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관절에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

## 부은 잇몸과 간질



많은 간질 환자들은 부은 잇몸질환  
이 있다. 심한 경우 부은 잇몸이 치아  
를 덮기도 한다. 이런 문제는 간질 때  
문이 아니라 간질 약(딜란틴) 때문  
이다.

잇몸이 부었을 때 환자가 복용하는 약물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다른 약  
으로 바꾼다. 계속 그 약을 사용한다면 잇몸이 붓는 것을 방지할 방법을  
찾는다(67-70쪽). 같은 약을 복용하더라도 매 식사마다 **치아를 주의 깊게**  
**닦거나 치아 사이를 청결히** 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잇몸이 붓  
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69쪽).

## 입 안의 출혈

입 안에 고인 피를 제거하는데는 젖은 거즈를 이용한다. 그리고 나면 어디서 피가 나는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출혈의 원인을 찾아 치료한다.

발견한 사실	출혈을 멈추게 하려면	참고(쪽)
치아를 뽑은 구멍에 있는 크고 붉은 핏덩이	핏덩이를 핀셋으로 제거한다. 숨뭉치를 물고 있게 한다.	112
잇몸이 짓무르고 피가 남, 입에서 나쁜 냄새가 남 (빈센트 감염)	과산화수소와 물의 혼합용액으로 씻어낸다. 가능한 한 치석을 제거한다.	8 121
치아의 씹은 구멍에서 붉은 피가 남	치아를 뽑는다.고름주머니가 있다.	87
주변의 잇몸에 피가 나면서 치아가 흔들림	치아를 철사로 고정한다. 뿌리가 부러졌다면 치아를 뽑는다.	106 151
뼈가 부러지고 찢어진 잇몸에서 피가 남	부러진 뼈를 철사를 가지고 모은다. 환자를 숙련된 치과의료인에게 보낸다.	104

## 치아를 뽑은 뒤에

치아를 뽑은 뒤에 부종, 심한 통증, 출혈이 생길 수 있다. 치료기구가 깨끗하지 않다면 파상풍(112쪽)에 걸릴 염려가 있다.

### 얼굴이 부음

치아를 뽑은 뒤 어느 정도의 붓기는 예상할 수 있지만 붓기가 점점 커지고 아프다면 감염이 시작된 것이다. 처치는 치아의 고름주머니와 같이 하면 된다. 감염을 막기 위해 페니실린 약을 3일간 주고 붓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열 찜질을 한다. 통증이 있으면 아스피린을 준다(8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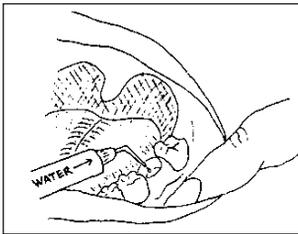


## 뽑은 자리가 아픔

치아를 뽑으면 약간의 통증이 있다. 이 때는 아스피린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2-3일 후에 뽑은 자리에 심한 통증이 시작되면 이를 **건성 발치와**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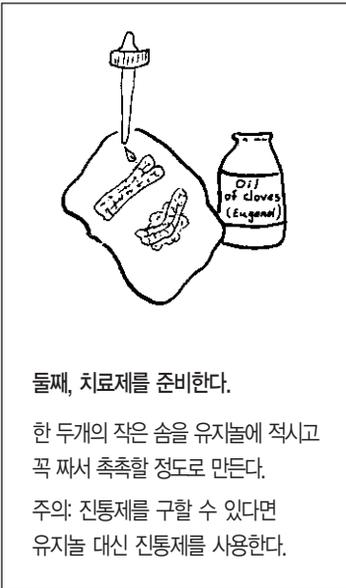
### 처 치

1. 발치와에 치료제를 넣고 통증이 감소할 때까지 매일 갈아준다.



첫째, 발치와를 깨끗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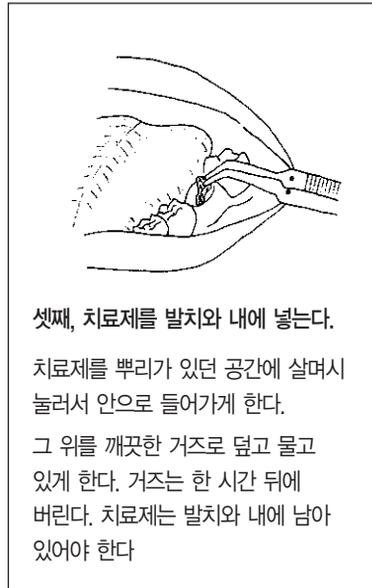
깨끗한 주사기로 따뜻한 물을 발치와에 뿌리고 빨아내게 한다. 잇몸이나 상처 부위를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바늘 끝을 무디게 갈아준다.



둘째, 치료제를 준비한다.

한 두개의 작은 솜을 유지놀에 적시고 꼭 짜서 축축할 정도로 만든다.

주의: 진통제를 구할 수 있다면 유지놀 대신 진통제를 사용한다.



셋째, 치료제를 발치와 내에 넣는다.

치료제를 뿌리가 있던 공간에 살며시 눌러서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 위를 깨끗한 거즈로 덮고 물고 있게 한다. 거즈는 한 시간 뒤에 버린다. 치료제는 발치와 내에 남아 있어야 한다

2. 통증 치료제로 아스피린을 준다(88쪽).

## 뽑은 자리의 출혈

치아를 뽑을 때 상처가 나면 출혈이 생긴다. 하지만 솜뭉치를 꼭 물고 있으면 지혈된다. 응고된 피 속에서 상처가 낫는 것을 돕기 위해 하루 이틀 간 소금물로 헹구거나 침을 뱉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처음으로 출혈이 생기면 솜뭉치를 발치와에 대고 다른 치아로 1시간 동안 꼭 물고 있게 한다. 솜을 계속 꼭 물고 있는지 지켜본다.(아파서 괴로와 하면 마취주사를 놓는다(9장). 솜이 피에 젖으면 바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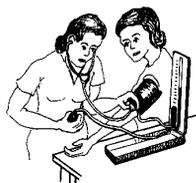
### 처 치:

1. 출혈이 계속되면 혈압을 측정한다. 정상보다 높다면 혈압강하제를 준다. 혈압이 내려가면 피가 적게 나온다.

2. 상처를 주의해서 본다. 잇몸이 찢어졌거나 혈렁하면 봉합한다(155-157쪽).

3. 차 앞을 거즈로 싸서 물에 담갔다가 발치와에 넣는다. 이것을 한참 물고 있게 한다. 선인장 즙에 담갔던 거즈를 물고 있어도 좋다.

출혈이 멈추면 환자를 집으로 보낸다. 다시 출혈될 것에 대비해 깨끗한 솜을 약간 준다(157쪽).



## 파상풍

파상풍은 매우 심각한 감염이다. 파상풍 균은 발 끝, 손 끝 같은 세균이 많은 곳의 상처를 통해 몸 안으로 들어온다. 치아를 뽑는데 더러운 기구를 사용하면 발치와에도 균이 들어올 수 있다(82~85쪽).

### 증 상

- 턱이 뻣뻣해진다.
- 물이나 음식을 삼키기가 힘들다.
- 몸이 굳어지고 갑작스럽게 경련이 온다.

기구를 대충 닦으면  
오래되고 말라버린  
피가 남아있다.



### 처 치

파상풍은 즉각적으로 전문 의료인의 치치가 필요하다.

## 침샘의 감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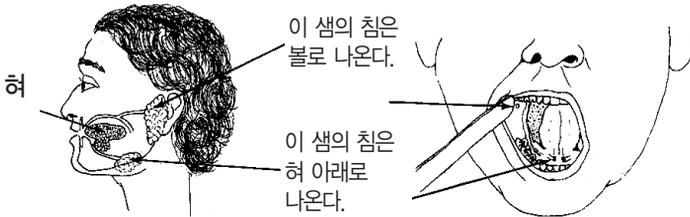
침샘은 머리 양쪽 귀 앞과 턱 아래 쪽에 있다. 침샘이 감염되면 얼굴이 붓고 몹시 아프다.

침은 침샘에서 얇은 관을 통해 나온다. 관은 양쪽 볼과 혀 밑으로 나온다.

작은 결석이 관을 막아서 침샘에 감염을 야기하고 얼굴을 붓게 한다. 입으로 들어가는 관에서 미세한 돌이 느껴지기도 한다.

### 증 상

- 침샘 부분이 붓는다.
- 배가 고프거나 음식을 볼 때나 냄새 맡을 때 통증이 심해진다.
- 관의 입구가 붉게 부어있고 만지면 아프다.



### 처 치

우선 감염과 붓기를 치료한 후 돌을 제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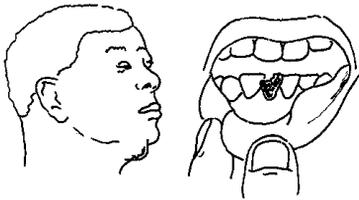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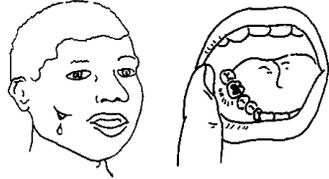
1. 3일간 페니실린을 준다(88쪽). 붓기와 감염이 심하면 효능이 빠른 결정성의 페니실린(166쪽)을 사용한다.
2. 통증이 있으면 아스피린을 준다.
3. 가능한 자주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찜질한다.
4. 배고프지 않도록 부드러운 음식을 충분히 준다.
5. 환자가 편안해지면 치과의사가 관을 막고 있는 돌을 제거할 수 있다.

## 얼굴의 짓무름

볼이나 턱아래가 짓무르면 치아나 잇몸에 질환이 있다고 봐야 한다. 잇몸의 질환이라면 ‘노마’ 일 것이다(115쪽 참고).

### 고름 주머니가 원인

입을 벌리고 짓무른 부위의 감염된 치아를 살펴본다. 많이 씹어서 파여진 부위와 흔들리는 치아를 발견할 수도 있다.



치아가 다른 치아보다 검은색이면 치아가 죽은 것이다. 농이 피부로 빠져나와 압력이 감소되면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는다.

### 처치

1. 치아를 뽑는다(11장).
2. 5일 간 페니실린 약을 준다(88쪽).
3. 페니실린 투여 후 상처를 관찰한다. 잘 아물면 더 이상 안에 감염이 없는 것이다.

여전히 짓무른 곳이 보이고 농이 나온다면 숙련된 의료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 농을 채취, 검사하여 페니실린에 저항성이 있는지 검사한다.  
**환자에게 다른 항생제가 필요할 지도 모른다.**
- X선 사진을 찍어 감염이 심하여 죽은 뼈가 있는지 알아본 후 있으면 제거한다.

감염된 잇몸 때문에 볼이나 턱이 짓무른다면 병은 중증이다. 다음에서 자세히 알아본다.

## 노마(빈센트 감염의 합병증)

아이의 단순한 잇몸 감염이 볼을 통해 얼굴로 번질 수 있다. 그럴 때의 상태를 노마나 수암이라 한다. 노마는 잇몸 질환인 빈센트 감염의 합병증이다(96쪽).

노마는 아이들한테 많이 발견된다.



- 신체 저항력이 낮은 아이는 영양결핍과 특히 철분이 부족해 빈혈이 있다. 결핵을 앓을 수도 있다.
- 빈센트 감염을 가지고 있다.
- 홍역이나 말라리아 같은 심각한 질환을 최근에 앓았다.

### 증 상

입에서 감염이 시작한다.

#### 점차 잇몸이 아프다.

1. 입이 짓무르면서 잇몸이 가렵다.
2. 잇몸이 붓고 짓무른다.
3. 음식을 먹거나 칫솔질 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난다.
4. 입냄새가 많이 나고 침이 많아진다.

#### 그리고 턱으로 옮겨 간다.

5. 치아가 흔들린다.
6. 치아 주변의 뼈도 일부 흔들린다.

#### 마지막으로 볼로 간다.

7. 피부가 팽팽해 지면서 검붉은 색으로 붓는다.
8. 볼의 검은 점이 터지면서 구멍이 생겨 입안으로 통한다.
9. 건강한 조직과 죽은 조직이 선으로 경계가 진다.



## 치 치

구멍이 더 커지기 전에 치료를 즉시 시작하여야 한다. 오래되면 흉터도 커진다.

### 1. 물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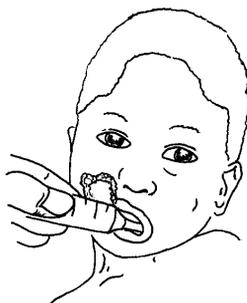
아이들은 탈수증에 걸리기 쉽다.

물을 충분히 먹게 한다.

우유-기름 음료를 준다(105쪽).

스스로 마실 수 없으면 숟가락이나 주사기를 이용한다.

물을 건강한 볼 쪽으로 넣어주고 아이가 삼키도록 한다.



### 2. 빈혈의 처치

철분을 투여한다. 아동은 알약이나 시럽을 3개월간 계속 복용해야 한다.

	암모니아 철 구연산 (시럽)	황화 철 (알약)
6세 이상	1 1/2ml (1 1/2 TS) 매일	200mg (1정) 하루 세번
3-6세	1ml (1TS) 매일	100mg (1/2정) 하루 세번
3세 이하	1/2ml (1/2TS) 매일	50mg (1/4정) 하루 세번

**또한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준다 :** 고기, 생선, 계란, 짙은 녹색 채소, 완두, 콩.

아이에게 십이지장충이 있으면 빈혈이 생긴다. 기생충 검사를 하기 전이라도 디아벤다졸이나 폴릭산과 같은 기생충약을 먼저 먹게 한다.

### 3. 항생제를 먹인다.

페니실린은 가장 좋은 항생제이다. 아이들은 알약을 삼키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주사를 놓는 것이 좋다(166쪽).

페니실린이 없다면 하루 네 번 설파디미딘 약을 준다. 500mg의 알약이나 500mg을 함유한 5ml의 시럽이 있다. 체중에 따라 알약(시럽)을 준다.

체 중	용 량(하루 네번)
5-10kg	½정, 시럽 ½TS
10-17kg	1정, 시럽 1TS
17-25kg	1 ½정, 시럽 1½TS
25kg 이상	2정, 시럽 2TS

### 4. 노마로 발전될 다른 병을 처치한다.

아이가 말라리아에 걸렸는지 진찰해 보고 말라리아 약을 먼저 투여한 다음 다른 병에 감염되었는지 면밀히 살핀다.

### 5. 짓무른 곳을 깨끗이 한다.

죽은 피부 조직을 핀셋으로 제거한다. 안쪽을 과산화수소로 씻어낸다(과산화수소용액은 8쪽 참고). 그리고 나서 젖은 드레싱을 한다.

#### 드레싱

- 거즈를 소금물에 담가 축축하게 적신다.
- 구멍 안에 넣고 마른 붕대로 덮는다.
- 매일 붕대를 갈아주고 구멍을 과산화수소로 씻어낸다. 그리고 새 드레싱으로 교체한다. 더 이상 나쁜 냄새나 어두운 색의 죽은 피부가 없을 때 까지 계속 치료한다.

### 6. 흔들리는 치아와 죽은 뼈 조직을 제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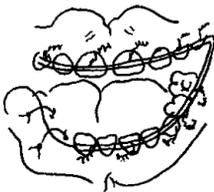
국소 마취를 할 수 있다(9장). 피는 많이 나지 않는다. 잇몸이 너털거리면 봉합해 준다(155-157쪽).

## 7. 입을 깨끗이 한다.

- 부드러운 솔로 치아를 하루 세 번 닦아준다.
- 잇몸을 약한 과산화수소 용액으로 닦는다. 이 때 적신 거즈를 사용한다. 2시간마다 5일 동안 닦는다.
- 5일 후에는 매일 세 컵의 따뜻한 소금물로 헹군다.

## 8.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반흔을 줄이기 위하여 수술을 하기도 한다. 수술하지 않으면 입을 제대로 벌릴 수 없을 것이다.



이 때 치과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아이의 턱은 철사로 고정해야 한다. 건강한 치아에 철사를 감으면 반흔이 수축된다. 이 때 입을 열도록 고정시킨다. 철사가 제거되면 아들은 음식을 씹을 때 입을 벌리고 다물 수 있다.

## 노마의 예방

**노마는 생기지 않을 수 있다.** 노마는 예방할 수 있다. 아이의 아픈 입을 잘 살피고 치아를 깨끗이 닦아준다.

누가 간호하든지 아이의 치아를 평소와 같이 깨끗이 닦아야 한다. 특히 약하고 영양이 부족하며 체내 수분이 적은 아이는 더 유의해서 간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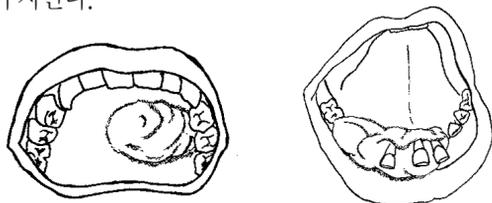
### 항상 유의할 일

- 매일 부드러운 솔로 치아를 주의 깊게 닦는다.
- 입을 따뜻한 소금물로 하루 두 번 헹군다 (7쪽).
-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먹는다.  
비타민C가 많은 - 구아바, 오렌지, 파인애플, 파파야, 토마토, 콩, 짙은 녹색 채소류



## 종 양

종양은 피부 밑이나 뼈 속에서 자라는 덩어리이다. 이것은 천천히, 꾸준히, 통증 없이 자란다.



**5일 이상 항생제로 치료하고 열찜질(88쪽)해도 붓기가 가라앉지 않으면 종양일 수 있다.**

### 처 치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의료진에게 보낸다. 종양을 제거하려면 수술해야 한다.

## 암



잘 낫지 않는 짓무른 상처는 암일 수 있다. 입술과 혀는 암이 자주 발생한다.

**암은 치명적이다.**

**약물 사용은 시간 낭비이다.**

암은 볼 수 없는 신체의 내면까지 빨리 퍼질 수 있다. 암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 처 치

짓무른 상처를 치유해도 더 이상 좋아지지 않으면 환자를 즉시 의료진에게 보낸다. 의사는 짓무른 곳의 일부를 잘라 암인지 현미경으로 확인한다.